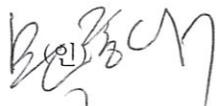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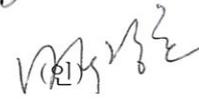


## 제311회 정기 이사회 의사록

건명	1. 제488호 제1회 추경예산 확정 따른 2021년도 EBS 운영계획(안) 2. 제2021-10호 2021년 상반기 예산집행실적 3. 제2021-11호 2021년 7월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상정자	사장 김명중		
일시 및 장소	2021. 7 15.(목) 16:11~17:45, 화상연결		
출석 인원	이사 9명	결석 인원	없음
참석자	유시춘 이사장, 김양은 이사, 김진 이사, 문종대 이사, 박강호 이사, 선동규 이사, 이영한 이사, 장옥님 이사, 정동섭 이사		
회의 결과	1. 제488호 : 공개, 원안 의결 2. 제2021-10호 : 공개, 청취 접수 3. 제2021-11호 : 공개, 청취 접수	기록자	간사

위 의결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연서 날인함.

2021년 8월 26일

이사장 유시춘	(인) 		
이사 김양은	(인) 	이사 김진	(인) 
이사 문종대	(인) 	이사 박강호	(인) 
이사 선동규	(인) 	이사 이영한	(인) 
이사 장옥님	(인) 	이사 정동섭	(인) 

제 311 회

# 이 사 회

- ◆ 일 시 : 2021년 7월 15일(목) 16시
- ◆ 장 소 : 화상 연결

**한국교육방송공사**

# 회 순

I. 개회 .....	1
II. 인사 .....	2
III. 전차 의사록 확인 .....	4
IV. 상정안건 .....	5
<의결안건>	
제488호 : 제1회 추경예산 확정에 따른 2021년도 EBS 운영계획(안) .....	6
<보고안건>	
제2021-10호 : 2021년 상반기 예산집행실적 .....	18
제2021-11호 : 2021년 7월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	33
V. 폐회 .....	37

(開會 : 16時 11分)

## I . 開 會

○ 議長 유시춘

그러면 김혜영 국장님, 성원보고 해 주십시오.

○ 理事會 事務局長 김혜영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적이사 아홉(9) 분 전원이 참석하셔서 이사회 규정 제7조에 의거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였기에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방청은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 이종풍 위원장, 김무성 사무처장, 김경민 사무국장 등 모두 3명입니다.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됨에 따라 저희가 이 회의 화면을 중계하는 방식으로 방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議長 유시춘

성원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한국교육방송공사 제311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겠습니다.

(( 議事棒 三打 ))

## II. 人 事

○ 議長 유시춘

안녕하세요.

COVID-19 상황이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이 되고, 그래서 오늘 정기이사회는 부득이 이렇게 원격 화상회의로 진행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모쪼록 이 상황이 개선되어서 회의실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직접 뵙지는 못 하지만 이렇게 화상으로라도 뵈니 반갑습니다.

그리고 새삼 IT 선진국 한국의 국민임을 문득 깨닫게 됩니다.

무척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사장님과 여러 부서장님들도 반갑습니다.

수도권이 4단계 격상에 따라서 거의 모든 회합이 중지되었습니다.

EBS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비상대책단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대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모쪼록 비대면 원격교육 지원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2학기에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교실에서 수업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삼복더위가 시작되었나 봅니다. 무척 답습니다.

이사님들, 그리고 여러 부서장님들 모두 건강하게 여름을 나시고, 모쪼록 다음 이사회에서 정겹게 얼굴을 마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상정안건은 의결안건 1건과 보고안건 2건입니다.

이사님들 좋은 의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김명중 사장님 인사말씀 듣겠습니다.

○ 社長 김명중

안녕하십니까.

이사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의 수도권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가 고통을 감내하면서 힘들게 쌓아온 방역시스템이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금번 이사회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정책에 부응하고 참석자의 감염예방 및 안전을 고려하여 원격 회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4일 월요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상향되었습니다.

사적 모임을 최소화하는 등의 강도 높은 방역수칙이 적용되고, 수도권의 유치중고가 등교를 중지하고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적 대위기에 EBS는 다시 한 번 코로나19 시대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무인 원격교육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공교육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사님들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사회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 확정에 따른 2021년도 EBS 운영계획에 대한 의결과 2021년 상반기 예산집행실적 및 7월 주요 업무 추진 실적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사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유시춘

지금 이 화상으로 보니까요, 특히 김광범 학교교육본부장님 얼굴이 아주 반쪽이 되셨습니다.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실 거라고 보고요, 지난 학기처럼 잘 하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힘내세요.

### Ⅲ. 前次 議事錄 確認

○ 議長 유시춘

그럼 전차 회의록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개최된 제310회 이사회 의사록을 확인하고 접수하겠습니다.

이의나 수정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전처럼 원안대로 접수해도 되겠습니까?

[ 理事들 “예.” ]

그러면 동의해 주신 대로 제310회 이사회 회의록은 원안대로 접수합니다.

(( 議事棒 三打 ))

## IV. 上程案件

○ 議長 유시춘

다음은 회의 공개 여부인데요.

오늘 의결안건 1건과 보고안건 2건 다 규정에 따라서 공개리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議決案件 〉

【 第488號 : 第1回 追更豫算 確定에 따른 2021年度 EBS 運營計畫(案) 】

○ 議長 유시춘

그러면 첫 번째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8호 「제1회 추경예산 확정에 따른 2021년도 EBS 운영계획안」 을 상정하겠습니다.

(( 議事棒 三打 ))

정책기획센터장,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화면이 공유되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에 관련해서 정책센터장인 제가 먼저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관련 부서장님들이 지금 접속이 돼 있습니다. 질의응답 시에는 저를 포함하여 관련 부서장들께서 응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4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제1회 추경예산 확정에 따른 2021년도 EBS 운영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 받고자 상정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22조 규정에 의해서 지난 6월 이사회에서 의결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른 운영계획안을 확정하여 이를 2개월 내에 방통위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안건을 보고 드리고 이에 대한 의결을 통해 관련 절차를 밟고자 합니다. (p)7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이사회에서 당초 2021년 예산으로 수입은 3,599억원, 비용은 3,638억원으로 책정하여 당기순손실 -38억을 예상한 예산안을 수입은 3,889억원, 비용 역시 3,889억원으로 균형재정을 맞추는 추경안에 대해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운영계획을 재수정한 것입니다.

주요 조정 내역은 첫 번째, 사업 여건 변화와 실적, 또 신규투자를 반영한 수익사업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신규IP 사업이나 구독서비스 강화 등을 위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수정이 있었고요.

두 번째, 교부금 4개 사업의 예산 확정이 작년에 비해서 더디 진행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확정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반영한 추경이 이루어졌고요, 이에 대한 내용 재조정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는 결산 확정 후에 따른 후속조치, 예를 들어 결산액에 따른 사내복지기

금 출연이나 또 기타 프로젝트 사업 등에 일부 지급되지 않은 잔금처리 등의 후속조치가 따라서 이를 반영한 추경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부서별 비용예산을 재조정된 운영계획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p)13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기존의 '21년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요, 바뀐 부분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13 보시면 예산 현황이 바뀌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수입예산이 당초 3,600억원에서 3,889억원으로 수정되었고, 공적재원은 기존 1,520억원에서 1,648억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상업적 재원 역시 2,079억원의 기존에서 2,241억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그 밑에 공적재원 부분입니다.

공적재원 부분의 수신료와 방통보조금은 기존과 동일하고, 교육보조금이 기존 986억원에서 1,124억원으로 증액돼 이 부분이 변동되었습니다.

밑에 관련된 교육보조금과 방송사업수입, 부대사업수입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변경의 세부내역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는 크게 변동사항이 있는 부서별 비용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22 학교교육본부 예산입니다.

맨 위 사업명 고교강의 사업 밑에 교육콘텐츠개발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보다 -7.8억원이 감소하여서 41.9억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 교육콘텐츠개발사업은 KERIS 사업을 저희가 받아서 일부 자체 수행을 하고 나머지는 다시 재교부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온라인클래스 전반에 관한 원격교육지원사업 역시 기존 예산보다 79.2억원이 증가해서 최종적으로 315.8억원으로 수정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에듀테크부 두 번째 사업입니다.

온라인클래스재구조화사업, 화상 고도화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10.6억원이 기존 예산보다 증가하여서 최종 21.5억원으로 수정 편성되었습니다. 영어인공지능프로젝트팀에서는 두 번째 사업인 AI영어말하기연습시스템이 기존보다 48.7억원이 증가해서 최종 65.7억원으로 수정 편성되었고, 이러한 수정을 반영하여서 학교교육본부는 종전 1,030.4억원에서 131.2억원이 증가하여 최종 1,161.7억원으로 편성되어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p)25 출판국 비용예산입니다.

크게 바뀐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행본 사업이 교재기획출판부와 교재개발부에 각각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의 총합이 20.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재기획출판부의 7억과 교재개발부의 15.9억으로 최종 편성이 돼서 총 22.9억원이 단행본 사업에 최종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중학교재 부분에 10억원이 증가해서 최종 42억원이 편성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출판 부분 기존 400.7억원에서 42.4억원이 증가해 최종 443.1억원으로 수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p)27 융합기술본부입니다.

융합기술본부 같은 경우는 IP콘텐츠관리부에 증액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웹사이트 클라우드 전환 이 부분의 예산이 원래 예산 배정이 없다가 13.4억원이 신규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온라인사업 플랫폼이 기존에 사업센터의 인터넷모바일부에 배정되어 있던 예산인데, 이를 융합기술본부로 통일화, 창구 단일화를 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의 예산이 이전되었고, 신규 플랫폼 구축 등의 비용이 추가되어서 기존보다 26.3억원이 증가돼 최종 35.5억원으로 온라인사업 플랫폼 운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융합기술본부의 예산은 기존 111.3억원에서 37.5억원이 증가해 최종 148.8억원으로 최종 수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p)30 스마트사업센터입니다.

스마트사업센터 역시 인터넷모바일사업비의 예산이 많이 변동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 구독서비스는 <명의>나 오디오 교양 플랫폼 신규 구축 등과 관련하여서 +6.4억원이 증가해 최종 6.7억원의 비용예산이 편성되었고요.

초등프리미엄도 +10.1억원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중학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저희의 소비율이 다소 떨어지는 추세를 감안하여서 -13.4억원을 감소하여 최종 50.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명품직업콘텐츠 역시 -5억을 감소시켜서 최종 24.1억원으로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사업부입니다.

광고사업부는 요즘 전반적인 지상파 광고가 상승에 있는 상황들을 반영하여서 전체 +6.2억을 증가해 최종 47.2억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팽TV&브랜드스튜디오팀입니다.

지금 팽수의 수익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사업센터에서는 라이선스 직영, 그리고 듀나 프렌즈라는 신규IP를 런칭하고자 합니다.

이를 반영하여 +1.7억 증가시켜서 IP기반 사업에 최종 20.8억원을 수정 편성하였고, 이러한 수정을 반영하여 사업센터는 기존 최종 314.4억원에서 -10.8억원 감소해 최종 303.6억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p)33 정책기획센터입니다.

정책기획센터는 홍보부의 홍보자료 발간의 비용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년 사사 관련해서 저희가 9,700만원 증가액을 반영시켜서 수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p)36 콘텐츠기획센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텐츠기획센터는 편성기획부의 지상파1TV 제작비가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세계석학> 관련한 제작비가 증가한 것으로 따라서 최종적으로 지상파1TV 제작비는 312.5억 원으로 수정 편성되었고, 북&렉처 프로젝트팀의 방송연계 단행본 개발과 제작은 박강호 이사님도 여러 번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희 목표치가 다소 과하게 잡혀있는 부분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이에 따른 -19.6억 비용 절감을 통해 최종적으로 36억원으로 수정 편성하였고, 이런 내용이 반영되어 콘텐츠기획센터는 기존 598.8억원에서 -14.4억원 감소해 최종 584.4억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p)39 경영지원센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센터 인사부의 인건비 부분이 크게 변동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인건비가 -15.5억,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정부보조사업 같은 경우 인건비를 해당 보조사업비에서 지원되는 정부보조사업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미리 들어오지 않아서 자체예산으로 인건비를 먼저 지출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부보조사업이 확정되고 해당 기금이 들어옴으로 인해 인건비 대체가 이루어진 -24억원이 반영되었고, 신규채용 +8.4억원 해서 결국 -15.5억원의 인건비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운영관리비의 복리후생비가 +3.2억원이 증가하여서 28.7억원이 되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내복지기금이 증가한 액수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건물부속설비관리비 역시 +1.48억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부족한 회의실 및 주차장을 확대하는 데 따른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영지원센터 비용은 기존 920억원에서 -7.8억원 감소해 최종 912.3억원으로 수정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한 부서의 비용예산 변화는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p)55,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1년 예산항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1년 예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수입은 3,589억원에서 3,889억원으로 증액하였고, 비용 역시 기존 3,638억원에서 3,889억원으로 증액되었고, 당기순익은 0원으로 하여 균형예산을 맞췄습니다.

자본예산은 기존 62억에서 68억원으로 증가하여서 연간 운영예산, 운영예산은 손익예산과 자본예산을 다 합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기존 3,700억원에서 3,957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p)56부터는 이를 반영한 세부내역과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는 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고, 궁금하신 사항은 저와 관련 부서장들이 성실히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유시춘

의견 주십시오.

예, 장옥님 이사님 말씀하세요.

○ 理事 장옥님

예, 잘 들었고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예, 잘 들립니다.

○ 議長 유시춘

잘 들립니다.

○ 理事 장옥님

앞에 (p)7에 보면 예산 조정의 이유 중 하나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부분이 발생하여’ 이렇게 해서 ‘이를 실적 기조에 반영했다.’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 이것 작성하실 때만 해도 4차 팬데믹을 예상을 못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또 이 4차 팬데믹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반영이 된 건가요?

그냥 이 직전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6월 말까지의 그런 상황을 반영해서 이렇게 짜신 거겠죠?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4차 팬데믹 대유행이 시작이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익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짤 때 상황들의 여건 분석과 미래상황들을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차 팬데믹 상황이 정확하게 예상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확하게 반영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저희가 국고사업이라든지 정부사업, 또 자체 수익사업의 부분들은 일정한 추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4차 팬데믹 부분이라는 부분의 변수는 발생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예상한 환경들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학프리미엄 같은 경우 작년에는 무료조치를 통해서 저희가 국고 지원 등을 대폭 받았는데, 올해는 그러한 부분이 1개, 한 군데 교육청 외에는 사실 전면적으로 무료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기에 중학프리미엄의 구독 소비율을 체크해 봤더니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사업이 무료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저희 사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환경분석의 요인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정부 정책의 변화는 지금 현재로는 전혀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예측한 부분의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은 4차 팬데믹으로 인해서 일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저희가 세웠던 큰 골격의 방향성들은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理事 장옥님

그러니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예, 맞습니다.

○ 理事 장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감사합니다.

○ 理事 이영한

여기 우리 보고서의 형식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각 부서별로 운영 목표, 주요 업무, 그다음에 세 번째로 예산 현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추경이기 때문에 예산 현황에서 중요한 것은 ‘증감이 어떻게 됐다.’ 이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보면 증감 같은 것이 보고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원래 두꺼운 예산서 추경보고서에 다 나오나요, 증감이?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통위에 제출할 때는 추경 운영계획과 지난 6월에 승인해 주신 추경안이 같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추경 운영계획은 방통위에 제출되는 기본양식이라고 이해

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理事 이영한

그래서 우리가 이사회 지금 하는 입장에서 보면 예산 현황에서 증감이 있고, 증감이 바로 위에 있는 주요 업무와 서로 매치가 되어야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이게 추경 편성에 대한 보고내용으로서는 조금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어요.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이사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이사회에 추경이 확정된 것이고요.

그때 저희가 그것에 대한 내용은 간략하지만 보고를 드렸었고요. 그 내용은 이미 전제가 된 상태에서 해당 부서에 어떤 비용들이 변화가 있는지를 이 운영계획 폼에 맞춰서 지금 보고를 드린 겁니다.

○ 理事 이영한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일단 예산 현황에서 증감이 여기서 표시가 돼야 하고, 각 부서 별로, 부서별로 어떤 항목별 증감이 어떻게 되고, 증감에 대한 설명이 주요 업무에서 나타나야 하고, 그래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이게 주요 업무하고 예산 증감이 서로 매치가 안 돼요.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예, 어떤 의미인지는 알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은 이 보고 양식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작년도도 이루어졌던 보고 양식이라 저희가 이런 상황을 유지했는데, 다음부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추경 운영계획에 따른 간략 요약보고서들을, 부별 내용으로 정리된 그런 것들을 추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理事 이영한

예, 그렇게 하세요.

○ 議長 유시춘

또 말씀 주십시오.

○ 理事 문종대

뒷북치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한데, 우리 공교육 보완을 위한 원격교육 확대한다는 게 경영목표였는데요.

예를 들면 미래 지향적 교육 콘텐츠 개발, 또 메타버스 교육 이런 것들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차세대 영상 기법 개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영상아트센터의 실감형 콘텐츠 제작 지원 강화 및 관련 기술 연구비, 또는 미래형 첨단영상 제작 역량 개발비, 이게 어느 정도 되나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책기획부 예산인데요.

경영정책차세대방송정책 활동에 1억4천 이렇게 돼 있고, 정책기획 일반지원 8천만원 돼 있는데, 이것 가지고 경영정책차세대 정책 세우는 데 총 얼마입니까, 예산이?

어떤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콘텐츠기획센터에 외주제작운영이 100만원 돼 있는데, 이게 예산인가요?

그래서 협력제작부, 외주제작 상당히 우리가 관심 갖고 있잖아요, '상생협력' 이러면서.

100만원 돼 있어서 이것도 좀 묻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2020년 대비 2021년에 계약직이 58% 증가하고 일반직은 1.9% 증가했는데 파견직이 2.0% 증가했더라고요.

계약직이 증가된 이유가 교육보조금 사업이 증가했기 때문인가요?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예, 맞습니다.

○ 理事 문종대

그래서 그런가요?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예, 맞습니다.

○ 理事 문종대

예, 이 정도 간단하게 질문 드립니다.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정책기획부 예산 말씀해 주신 것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부서별 비용예산을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온라인플랫폼 구축비도 한 쪽에 몰아져 있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각 부서별로 분산돼서 나뉘져 있으니까, 그래서 수신료단에도 말씀하셨던 연구과제 관련된 비용이 있고요, 각 부서별로도 연구과제에 대한 비용들이 책정돼 있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학교교육본부, 미래교육기획부 같은 경우 그런 예산이 반영이 돼 있어서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사적으로나 또 부서별로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개발들은 그러한 비용으로 충당된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외주제작비 같은 경우는 해당 부분을 콘텐츠기획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어떤가 싶

은데, 혹시 말씀이 가능하실까요?

아, 지금 옆에 기획예산부장이 있어서 바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제작비에 대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주제작비에 대한 내용은 1TV, 2TV 제작비에 반영된 것이고요.

지금 해당 내용은 외주제작 기획안 심사 및 회의비가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105:37)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주제작의 실제적 비용들은 채널별 제작비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이것은 그냥 회의비만 책정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아까 영상센터의 차세대 실감형 콘텐츠 연구나 이런 부분에 말씀하셨는데요.

그 주요 예산이 창의융합교육부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창의융합교육부에서 VR/AR 메타버스의 주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어서 주요 예산들은 그쪽에 배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아까 협력제작비 회의비처럼 영상센터에서 그것들을 실제 구현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협의에 대한 예산들을 그쪽에 배정하고 그 명목을 이렇게 표시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理事 문종대

예, 감사합니다.

○ 議長 유시춘

또 의견 주십시오.

예, 선동규 이사님.

○ 理事 선동규

사내복지기금은 그동안 출연 추세가 어땠나요? 작년 재작년 사내복지기금.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당기순이익의 5%를 저희가 하게 돼 있어서요, 지금 당기순이익이 난 해에는 5%를 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는 저희가 반영을 한 것이고요. 재작년에는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적립하지 못했습니다.

○ 理事 선동규

그럼 지금 사내복지기금은 쌓여있는 돈이 얼마나 되나요?

쌓여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규모가?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센터장님 접속이 안 돼 있어서요.

○ 理事 선동규

예, 알겠습니다.

○ 議長 유시춘

예, 또 의견 주십시오.

제가 궁금한 것 간단한 건데 여쭙볼게요.

(p)22 에듀테크부의 하단에 보면 장애인서비스에 2억5천이 있고요, 또 모바일도 1억9천 있고, 학업 중단학생(초등) 1억이 나와 있는데, 우선 장애인서비스는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나요?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학교교육본부장님 혹시..

○ 議長 유시춘

말씀하실 수 있나요?

장애인서비스를 뭐를 하고 있죠?

○ 學校教育本部長 김광범

지금 2억 5천만원 중에서 대부분 이 부분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해서 고등학교 수능 보는 학생들의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자막과 그리고 저희 교재나 방송 프로그램에서의 화면 해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議長 유시춘

이게 수화로 하는 그것 얘기하는 거죠?

○ 學校教育本部長 김광범

예. 수화는 그런데 장애인학교 장애인 측의 수요를 조사해서 그쪽이 선택하게 합니다.

저희가 모든 장애인분들에게, 시각청각 전부 다 지원할 수는 없어서, 그분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 議長 유시춘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나요, 지금?

○ 學校教育本部長 김광범

예. 일부 들어오고, 일부는 또 이번에 국고사업에서는 이것과는 또 별도로 전체적인 장애인, 저희가 올해 만드는 모든 콘텐츠는 전부 다 장애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議長 유시춘

제가 왜 여쭙보냐면, 사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공기관에서 장애인에 대한 공적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다고 자꾸 지적을 당하기 때문에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고요.  
그 초등학교 학업중단학생 지원에 1억이 쓰여지는데, 이것은 뭐죠?

○ 學校教育本部長 김광범

이 부분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에서도 예를 들면 홈스쿨링이라든가 학교 밖 아이들이라든가,

○ 議長 유시춘

뭘 지원하고 있죠?

○ 學校教育本部長 김광범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시범적으로 이 학생들이 일정한 강의를 수강하면 과거 검정고시처럼 자격을 부여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라는 자격을.  
그런데 그 시스템을 지금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된 부분이 없어서 중학교는 교육개발원에서, 그리고 초등학교는 EBS에서 1년에서 몇 백 명 단위로 저희가 저희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저희 콘텐츠로 수강 기록을 교육부에 그 기록을 주면 그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 초등학교 과정을 이수했다 라는 졸업장 형태를 줍니다.

○ 議長 유시춘

직접 수행은 그러면 교육부가 하는 것이네요?

○ 學校教育本部長 김광범

그렇습니다.  
다만, 예산이 1억밖에 안 되는 부분은 교육부가 일종에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議長 유시춘

알겠습니다.  
더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 質疑 및 意見 提示하는 理事 없음 ]

없으시면 의결해도 될까요?

[ “예.” 하는 理事들 있음 ]

그럼 의결안건 제488호 「제1회 추경예산 확정에 따른 2021년도 EBS 운영계획안」 은 원안대로 의

결합니다.

(( 議事棒 三打 ))

〈 報告案件 〉

【 第2021-10號 : 2021年 上半期 豫算執行實績 】

○ 議長 유시춘

다음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10호 「2021년 상반기 예산집행실적」 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책기획센터장, 상정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우선 보고에 앞서서 보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 부장인 기획예산부장이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유시춘

예, 그렇게 하십시오.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감사합니다.

○ 企劃豫算部長 김우영

기획예산부장입니다.

설명자료를 통해서 2분기 예산집행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65 개관부터 보시겠습니다.

2분기까지 누적 실적은 수입이 2,02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32억원 증가, 비용은 1,41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02억원 증가하여 이익은 230억원 증가한 613억원입니다.

자본은 1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수신료를 제외한 공적재원, 하단 표입니다.

더 정확히는 정부 보조금 예산을 제외하면 수입 1,252억원, 비용 991억원으로 이익은 261억원이 되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억원 증가해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 의견은 마지막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입 부분입니다.

공적재원은 전년동기대비 345억원 증가한 868억원이고, 자체수익사업은 전년동기대비 90억원 증가한 1,152억원입니다.

세부사업은 바로 다음 장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설명, 먼저 공적재원입니다.

수신료를 제외한 정부보조금 예산은 계획상 100%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 시점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신료 넘어가고, 방통보조금은 전년동기대비 14억원 증가한 99억원입니다.

이는 작년보다 자금 대체가 1개월 당겨져서 오는 차이입니다.

교육보조금은 전년동기대비 331억원 증가한 674억원입니다.

작년에 시작된 원격교육사업비가 교부된 시점에 차이가 있었고, 올해 신규 반영된 426억원 규모의 국고사업이 교부가 된 영향입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방송사업입니다.

방송사업부터 보시면 방송광고, 제작협찬, 채널공급의 3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고, 전년동기대비 19억원 증가한 159억원입니다.

방송광고는 전년동기대비 23억원 증가한 124억원으로 전분기의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키즈존 실적이 하락 추세이고, 성인존이 이를 대체하고 있는 문제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의 참고자료를 먼저 보시면, [참고자료1]에서 A사와 EBS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35%, 47% 증가하였습니다.

나머지 결합대상 방송은 C사를 제외하고 전년수준 내외를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 때보다는 다 개선된 사항입니다.

[참고자료2]를 보시면 전년동기대비 키즈존이 -19%, 성인존이 +44% 수준이고, 자체판매는 23% 증가, 결합판매는 24%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분기 실적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맨 하단의 실적이 바탕이 된 시청률은 전년동기대비 유아어린이가 -34%, 주 시청층이 +2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방송광고시장은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다시 대유행이 확산되고 있지만 6월까지, 그리고 7월까지도 보면 '광고경기전망치수'라는 게 있습니다. 'KAI'라고 KOBACO에서 하는 것인데, 이게 100을 다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6월은 103.5였고, 7월은 101.9입니다.

그래서 100보다 넘어서면 경기회복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고, 광고주들이 광고를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어서 1월을 제외하고는 매달 같은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올해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가 늘어나고 있고, 지금 집콕 현상 때문에 성인들이 집에서 TV를 보면서 모바일로 가지 않고 TV 쪽으로 가고 있어서 전년 대비해서는 기저효과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지상파가 30%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전장으로 돌아가서, 제작협찬이나 채널공급은 이월 수입의 차이 말고는 별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고, 채널공급은 계약공급단가가 소폭 상승한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p)70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출판사업입니다.

전년동기대비 1억원 감소한 614억원입니다.

직영출판은 605억원이고, 참고로 추경 때 보고 드렸던 반품 충당 환입액 67억원이 계상된 수치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판매가 반품을 적용한 실적을 내는데, 반품률이 평균치보다 훨씬 낮게 나와서, 즉 계획 대비해서 많이 팔렸다는 거죠. 계획 대비해서.

그래서 그렇게 반품 충당금 설정한 금액이 실적이 되어서 올해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익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초·중학 교재는 전년동기대비해서 19억 감소했습니다.

작년에 워낙에 온라인클래스와 연동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것이 기저효과로 올해 감소한 것이고요, 초등에서 16억원 감소했습니다.

고교연계 교재는 7억원 감소한 294억원입니다.

연계비율이 축소되고 응시생 수가 감소한 영향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비연계 교재는 신규교재의 증가 영향으로 2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송기반단행본은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목표가 과하게 설정된 부분이 있어서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점이 오래 되지 않았고 지난달에 추경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발간 목표는 30책에 못 미치는 19책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에는 미흡하지만 목표를 현실화했기 때문에 향후 실적 관리를 통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p)71 문화콘텐츠 사업입니다.

전년동기대비 48억원 감소한 36억원입니다.

글로벌 콘텐츠와 유아어린이 사업은 여전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 추진 어려움이 있어 실적 회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내용이 주로 공연이벤트 쪽이 많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았고 회복에도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콘텐츠영상공급 부분에 IP 기반 사업입니다.

‘펍수’ 화제성이 급감하고 있고, 올해 펍수 화제성 감소를 예상하고 대체할 신규IP 제작에도 열을 올리고 있지만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타겟책으로 매출규모가 가장 큰 라이선스 사업부서에서 부분

직영화와 두나 프렌즈와 같이 신규IP를 추가로 사업화하는 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지켜보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콘텐츠 사업입니다.

전년동기대비 2억원 감소한 78억원입니다.

IPTV와 VOD는 7억원 감소했고, 이는 이월수입 차이 3억원과 콘텐츠 공급계약 방식을 장기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하면서 일시적으로 감소한 영향이 반영되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은 신규 OTT인 쿠팡플레이 등에 대한 매출이 증가하면서 1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분기에 쿠팡플레이에 대해서 매출이 5억원이었으나, 그것이 배로 증가하여서 지금 1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광고는 3억원 감소했는데, 팽수 화제성 감소 영향이 가장 크지만 전체적으로도 조회 수 감소가 일어나서 이에 대해서 타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p)73 온라인 사업입니다.

전년동기대비 18억원 증가한 76억원입니다.

먼저 구독서비스는 3억원, 67% 증가했습니다.

작년 10월 구독서비스 체제 전환 이후에 이전 체제에 비해서는 실적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표 대비해서 미달해서 조정한 바가 있고요. 월평균 구독자는 작년 말과 비교했을 때 44% 증가하였습니다.

추경 때 상승세 가속을 위해서 지난 추경에서 헬스케어와 오디오 교양 등 신규 콘텐츠 제작과 플랫폼 구축비를 반영한 바 있습니다.

사이트 기반 제휴는 15억원 증가했습니다.

중학 프리미엄에서 대부분 증가한 것이고, 작년에 온라인 클래스와 연계해서 6개월간 무료화한 것에 대한 기저효과와 실제 학습자수 증가 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참고로, 상반기 학습자수는 약 5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p)74 수탁·협찬용역사업입니다.

수탁사업에서 90억, 협찬용역사업에서 10억원 증가해서 총 100억원 증가한 178억원입니다.

각각 수탁사업에서 30억원, 협찬용역에서 20억원 정도 이월수입이 반영되었고, 수탁에서 특히 캄보디아 ODA와 오프라인 공간 사업이 반영되면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p)75 [참고자료4]입니다.

이는 9개 전략성장지원사업의 실적만 따로 추린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신수종 사업으로 관리하던 것을 명칭과 내용을 조금 바꿔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맨 하단에 초등중학교고 외에는, 고교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반품 충당금 환입금을 반영한 것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출판 3개사업 목표 달성을 하고 있고, 오프라인 공간사업의 경우에도 실적이 미달한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지금 6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7월자로는 목표를 달성한 수입이, 대기하고 있는 수입이 있어서 목표 달성을 한 상태입니다.

다만, 펴수를 대체하지 못하고 있는 IP기반 사업과 지금 책 발간이라는 핵심과업부터 달성해야 하는 방송기반 단행본 사업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초등프리미엄 사업은 사업 추진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가 있어 지연되고 있으나 이달 중 오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달에 추경을 통해서 해당 사업에 대한 보완책을,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겠지만 일부 반영을 하였기 때문에 일단 계획 이행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 성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p)76 비용 부분입니다.

비용 부분은 대체로 수입과 연동된 사항이므로 보다 요약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세부사항으로 넘어가서 (p)77 인력 운영을 보시면, 인건비는 17억원 증가한 282억원입니다.

호봉 및 승급상승분 7억원과 신규직원 채용 7억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국고사업 인건비 대체가 이루어지면 연말에 증가폭은 줄어들 예정입니다.

법정보험료와 업무보조원 등은 적용 요율과 최저임금 상승분 및 인원 증가 영향으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p)78 프로그램 제작비입니다.

전년동기대비해서 54억원 증가했는데, 1TV와 2TV에서 57억원 증가했습니다.

작년 코로나19 때문에 상반기 편성 물량이 하반기로 넘어간 것에 대한 기저효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작비 내에서 집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p)79 교육보조금 사업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규 국고 사업비 및 특교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연동해서 증가한 것입니다.

(p)80 출판사업비는 전년동기대비 12억원 감소한 232억원입니다.

수입은 전년 수준이나 비용은 감소한 이유는, 수입이 증가하여 대부분 차지한 반품 충당 환입금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라인클래스 영향의 감소, 학생 수 감소, 연계율 축소 등의 이유로 전반적인 판매 감소세가 반영했고, 고교 비연계와 단행본 등의 신규교재 발간이 늘어난 사업은 비용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참고자료7]을 보시면, 작년에 비해서 이 부분은 수

입에 반영했던 반품 충당 환입금을 제외한 실제 판매 부수를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판매세를 보시게 되면 비연계 교재를 제외한 전 부분이 감소하고 있고, 특히 초중은 20% 내외로 빠졌습니다. 이 말은 온라인클래스 영향에 대한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야 되고, '19년도에 비해서는 모두 다 증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p)82입니다.

콘텐츠/온라인 사업비입니다.

총액 13억이 증가했는데, 온라인 사업에서 9억원 증가한 것이 주요인입니다.

수입과 연동한 수수료 증가와 EBSlang 콘텐츠를 HDML5로 변환하는 비용, 그리고 글로벌 석학 플랫폼 구축비용 등이 반영하여서 증가하였습니다.

(p)84 바로 보시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비입니다.

대체로 전년 수준이고, 문화콘텐츠사업 수입이 포함해서 연동 수수료가 감소함을 반영했습니다.

(p)85 경영관리비입니다.

경영관리비는 특이사항이 없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p)86 자본 예산입니다.

전년동기대비 4억원 감소한 11억원입니다.

UHD 송신 이슈로 인해서 방통보조금 교부가 지연되면서 집행이 원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년 대비 8억원 감소했습니다.

송출 시스템 관련된 1억원 제외하고는 다 교부 받기로 돼 있기 때문에 집행에는 크게 현재 까지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실적 보고를 드렸고, (p)87 실적을 토대로 한 기술적 추세 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상반기의 전망은 그렇게 정확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추세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 대한 비율, 증가세 이런 것들을 예산부에서 기술적으로 전망하는 거여서 오차는 상당히 있고요.

다만, 저희는 또 보수적으로 전망하는 편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을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광고 외에는 대체로 목표에 미달 것으로 보이고, 특히 펄수 화제성 급감에 기인한 IP 기반 사업과 유튜브 등 콘텐츠사업 수입의 감소를 반영했습니다.

출판 같은 경우도 사실상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처음에 예측했고 추경에서도 크게 빠지지 않는 것으로 반영했으나, 6월 모평 이후에 수능 완성의, 6월모평에서 간접연계율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봐서 그게 수능 완성 교재판매 영향을 미치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추경 때 반영했던 문해력 교재라든지 여러 가지 신간들을 발간하면서 만회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일시적으로 봤을 때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산 3,889억원에서 131억원 미달하는 3,758억원을 전망하였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91억원 정도 덜 집행한 3,798억원으로 전망을 했고, 그래서 예상 당기순이익은 -40억원 정도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추세 분석에 의존한 전망이라 상당한 오차가 있고, 이번 전망은 그리고 지난달의 수치 조정을 반영한 추경 직후에 하는 것이므로 지금으로서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추경에 반영한 여러 보완책들이 추진되어 성과를 거두고 현업 부서의 전망치를 받아 반영하는 3분기 실적부터 보다 현실적으로 정확한 전망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은 기억하시겠지만 1차 추경이 10월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작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반영되는 부분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소가 많아서 기다렸다가 반영하면서 늦어졌고, 올해 추경은 사업 환경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해서 6월에 미리 한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작년에는 경영환경이 크게 바뀌면서 역설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에서 긍정적 영향이 있었고 하반기 실적이 기대가 되었다면, 올해는 반대로 대부분의 사업에서 그러한 영향이 다소 일찍 걷히고 기대했던 신규사업이 기대했던 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 매우 불확실성이 높은 하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난달에 추경이 있었고 몇 가지 보완책을 반영했기 때문에 일정기간 추이를 살피고 당장 다음 달부터 내년 예산편성 지침을 마련해서 예산작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하반기 사업과 내년 사업을 같이 살피면서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질문하시면 성실히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유시춘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주십시오.

예, 정동섭 이사님 말씀하세요.

○ 理事 정동섭

제가 거기 굉장히, 저도 예산을 많이 다뤄서 그런데, 아직 7월이지만 사업이 목표대로 제대로 잘 안 됐을 때는 이 추세가, 무슨 반전할 수 있는 히든카드가 없는 한 상당히 이 추세가 계속될 것 같은데,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은 계속 나가야 될 건데 여기에 대한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거나 대책이 없으면 적자의 가능성까지, 물론 저번에 약간의 편성돼 있지만 대폭적인 적자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식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이 설명을 들으면서, 그런 준비 같은 것은 없나요?

이게 사업이 계속 계획했던 대로 수입은 안 들어오고 사업비는 계속 나가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적자가 예상이 된다.’ 또 이것을 어떻게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 企劃豫算部長 김우영

기획예산부장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세부 디테일한 것은 사업센터나 말씀을 하실 것 같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단 추경 때 이미 상반기에 조짐이 보였기 때문에 쉐수를 비롯해서 추경을 하게 되었고, 관련해서 3가지 부분에서 지난 추경에 반영을 했었죠.

○ 理事 정동섭

그렇게 하고 나서도 지금 상당히, 시점이 한 달이나 조금 지났지만, 하반기에 대한 전망이 설명 자체를 들으니까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다가오지를 않아서 상당히 염려스럽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 企劃豫算部長 김우영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비용관리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지난 2019년부터 계속 타이트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지난 한 2년 동안 축적돼 있던 피로도나 비용이나 억제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에 환경개선, 회의실을 만든다거나 주차장을 개선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용이 투자된 것은 있는데,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것도 기준을 완화시킨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모니터링하면서 비용관리는 하고 있고, 매출 주는 것을 보면 상당히 우려스럽지만 아시다시피 저희가 매출과 연동해서 비용이 자동적으로 감소되는 부분이 상당히 큼니다. 저희가 이익잉여금이 굉장히 크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이 감소하는 것만큼 적자가 크게 다가오는 것은 아닌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아서 현재 한 40억 정도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추경 때 반영했던 사업들의 성과, 핵심 사업들 수행하고 있는 여부라든지 성과 창출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관리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한 가지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理事 정동섭

예, 말씀하십시오.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출 확대라는 측면과 비용 절감이라는 2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매출 확대를 위한 부분들과 비용 절감에 대한 2가지 축을 같이 전사적으로 보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 하반기 플러스 내년도 부분까지 정밀하게 내부적인 점검들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런 보수적인 전망을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하반기 사업들이 내년도까지 연결되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적 전망을 통해서 각 부서에 분발을 유도한 측면도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매출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 지금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교육보조금 확대를 저희가 전사적으로 뛰어서 많이 확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열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저희의 전사적인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그러한 부분을 강조했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보수적 전망을 매출 확대 면에서 내놓은 이유는,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지금 국고보조금이나 방발기금 등에 전사적인 코로나 회복에 대한 재원 확보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정부부처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관리되고 있는 부분 플러스 내년도 부분까지 확대를 하기 위해 각종 프로젝트와 각종 제안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 좀 더 면밀히 해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고, 지금 자체사업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용 확대를 위해 몇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용 절감 등을 통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탈 리뷰 등을 다시 부활시켜서 그 부분에 대한 재조정 등을 통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손실이 나지 않는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동섭 이사님 말씀처럼 저희가 경계를 갖고 잘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理事 정동섭

앞에서도 설명 주신 것 중에 제가 하나 더 첨부해서 물어보면, 라이선스 사업도 직영화하고 펙수 대체라고 그랬나요, 그런 사업도 개발을 하신다 그랬는데, 하여튼 어떻게 하든 수입.. 저는 그런 비난도 많이 받았습시다만 'EBS가 공영방송인데 너무 주눅 들지 말기를 바라는 것은 저도 똑같은 마음이지만, 또 사업을 놓고 봤을 때는 잘 경영을 하셔서 흑자가 나면 더 좋고 적자 폭도 줄이는, 리스크 관리를 잘 하시는 그런 쪽에서 힘을 모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社長 김명중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議長 유시춘

예, 사장님 말씀하십시오.

○ 社長 김명중

우리 정 이사님, 염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똑같은 마음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절감하고 수익은 넓혀야 되는데, 저희가 일단 현재 여기 반영되지 않는 노동부 사업 한 40억짜리가 저희가 이미 확보해 놓은 게 있고요.

9월부터 <세계석학> 방송이 직접 되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은 광고료를 뛰어넘는 특관을 지금 기획하고 있어서 앞으로 하반기의 광고수입을 전략적으로 넓히는 방안을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또 여러 가지 사업을 고민하고 있는데, 핑수가 실제로 전체 매출액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핑수가 전에는 콜라보를 한다든가 광고를 찍었다든가 이런 것의 수입이 있었는데, 사실 광고 이런 부분은 또 수익률이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부터는 캐릭터로서, IP로서의 관리를 철저히 하게 되면 그래도 저희가 염려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익을 낼 것으로 지금 예산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거의 돼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작년 핑수 만큼은 못 하지만 수지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議長 유시춘

예, 박강호 이사님 말씀하십시오.

○ 理事 박강호

저는 정동섭 이사님 질문과 정반대의 희망을 섞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데, 추경을 3,900억 정도로 보면서 저는 ‘잘하면 4천억 시대를 이룰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예산부장께서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3,758억 정도 전망하신다 그랬는데, 저는 사장님 금방 말씀하셨지만 사장님 의견을 한 번 더 듣고 싶어요. 4천억 시대가 가능한지.

이 4천억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4천억이 되면 KBS의 3분의 1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수신료 산정 이런 것 얘기할 때도 ‘야, 3분의 1 내놔라.’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상징성이나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저는 희망 섞인 질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議長 유시춘

사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 社長 김명중

제 마음 속의 숫자는 ‘EBS 예산 규모는 적어도 플라이급에서 미들급이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제 미들급의 기준은 4천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4천억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제 마음 속의 숫자는 그만큼 두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유시춘

예, 선동규 이사님 말씀하십시오.

○ 理事 선동규

쪽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집행부, EBS 구성원들, 참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시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되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아까 사장님이 핑수 말씀도 하셨지만 국민들이나 시청자들의 EBS에 대한 이목을 집중시키는, 관심을 더 증대시키는, 제 느낌으로는 작년에는 그래도 핑수가 있어서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EBS가.

그런데 관련해서 프로그램 콘텐츠를 보면,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EBS 프로그램’ 그러면 생각나는 게 <세계테마기행>, <다큐프라임>, 그다음에 나머지 것은 그냥 다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서운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고만고만한 프로그램들이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나열돼 있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핑수라도 있었는데 ‘금년 들어서 특별히 새롭게 비장의 카드식으로 내놓은 프로그램이 있었나.’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다 고만고만했었다.’

물론 공적자금을 더 받는 것, 이런 것 수익도 많이 올라야 되지만, 역시 프로그램을,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는 게 방송사의 기본 기능이자 역할인데, 제가 기본적으로 EBS 프로그램들 보면 정말 그래도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런데 새로운 프로그램이 히트치는 프로그램이 없다.

그래서 EBS 제작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데 그쪽에 조금만 더 지원을 한다든가 관심을 더 집중시킨다든가 하면 정말 전 국민들이, 모든 시청자들이 ‘EBS EBS’라고 노래를 부를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역시 콘텐츠에, 프로그램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가을 개편이 10월 인가요, 11월 인가요? 10월 인가요? 가을 개편이 좀 남았는데, 지금부터 논의를 해서 아이디어도 받고 해서 <세계테마기행>, <한국기행>, <다큐프라임> 이 박스권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유시춘

예, 장옥님 이사님 말씀하십시오.

○ 理事 장옥님

선 이사님 말씀하고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손을 들었는데요.

아까 설명하신 자료 (p)69에 보면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유아어린이 키즈존 관련이  
예요.

이사님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에도 이 유아어린이 쪽에서 광고가 줄어들고 또  
시청률이, 광고매출과 시청률이 줄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한 20% 정도.  
그런데 작년에 줄어든 것에서 작년 대비 또 거의 20% 내외로 광고매출과 시청률이 지금 줄어든  
것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게 2년 연속 이렇게 줄어들었으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건데, 성인 시청률과 성인 시간대  
광고매출은 아까 말씀하실 때 ‘집콕 영향으로 증가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어린이들, 유아 다들 그 역시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그럴 텐데 이해가 잘 안 돼, 이렇게 시청률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

물론 시청률이 빠지니까 광고매출도 빠지겠죠.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여튼 제 기억에는 계속 이게 빠졌다 라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선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콘텐츠의 힘으로, 콘텐츠의 힘이 중요한 그  
런 방송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어떤 대책이라 그럴까 회사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 理事 선동규

언젠가 제가 한번 회의 때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워낙 죽을 쓰고 있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유  
아어린이 프로그램을 싹 폐지해 버리고 다른 프로그램 대체하자.’ 그런 과격한 발언도 한 적이 있  
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콘텐츠기획센터장님,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 議長 유시춘

류재호 콘텐츠기획센터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 콘텐츠企劃센터長 류재호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유아어린이 시청률이 지속적으로 빠진 것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책임자로서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유아어린이 쪽의 시청률 하락은 작년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저희뿐만이 아니라 투니버스라든가 이런 쪽도 지속적으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광고도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고, 그렇지만 그게 저희들이 ‘그러니까 빠져도 된다.’ 합리화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올해도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했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성공적이지는 않았습니  
다.

그래서 유아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내년, 오히려 이번 하반기 개편보다는 내년 봄편성을 준비 하는 작업들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장님도 이 부분에 관여해서 같이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동규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세계테마기행>이나 <한국기행>, <다큐프라임> 이외에 뭔가 그것을 벗어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파일럿 시장에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성공적인 결과를 내지는 못 했습니다.

올해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 의미 있게 보고 있는 것들은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프로그램이 시청자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었고, 그리고 <신계속의 맛터사이클>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에서도 그렇지만 또 광고에 있어서도 재판매율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글로벌 석학>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후에도 새로운 콘텐츠 개발, 그래서 여러 가지 파일럿을 시도해 본다든가 하반기에는 그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과 유사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혀 다른 형태여서, 그래서 제작방식도 현재 상황으로는 내년의 제작 여건이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제작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확실 상황에서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 ○議長 유시춘

요약하면, 콘텐츠의 선택과 집중을 요청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지적으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여러 석학들과 지식 인들, 셀럽들을 EBS가 글로벌 플랫폼을 구축해서 세계로 쏘아 보내는 그 작업이 ‘그레이트 마인즈’로 명명을 한 것 같은데요. 그게 요즘 말로 대박이 나기를 기원하고, 경영에 있어서도 아무리 콘텐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적자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요구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요약이 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예, 이영한 이사님.

○ 理事 이영한

우리가 EBS를 같이 볼 때 올해 현재 전망이 40억 정도 적자 전망이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EBS 임직원분들의 여러 가지 역량으로 볼 때 적자는 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봐야 하거든요.

‘과연 우리가 예산문제, 균형예산 이것을 한 단계 넘어서 해야 할 것이 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우리가 EBS가 국제화하고 세계화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EBS가 국내에서 어쨌든 코로나를 거치면서 확고한 자리를 구축했던 말이에요.

구축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과연 EBS가 해야 할 역할이 뭔가를 한번 생각도 해 보는데, 예를 들어 방송에서도 한류라는 게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EBS가 과연 교육방송으로서 한류 가능성은 뭔지, 동남아 시장, 동남아 권역에서의 EBS 역할이 없는지, 또 조금 더 우리가 한다고 하면 어쨌든 EBS가 교육방송으로서 공영방송으로서 꿈이라고 하면 BBC 같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좀 더 넓혀서 꿈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EBS가요.

그런 게 필요하고, 그게 금방 되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런 것을 하나의 플랜을 세워서 중장기적으로 그런 플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예산 여기는 일단 한번 넘어서, 과연 EBS가 균형예산 넘어서 뭘 할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 議長 유시춘

예, 김양은 이사님 말씀하시죠.

○ 理事 김양은

사소한 건데요.

75쪽에 9개 전략성장지원사업 수입 실적을 기술하셨는데요.

구독서비스가 작년 8월 하반기쯤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2분기의 예산과 실적이라고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수치로 나온 건가요?

그것 먼저 물어보려고요. 그래서 혹시 이게 어떤 수치..

나올 수가 없잖아요, 구독서비스는 그 이후인데.

○ 企劃豫算部長 김우영

기획예산부장입니다.

8월에 준비를 해서 8월에 무료 서비스를 하고 9월부터 사실상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그 전 체제, VOD 판매 체제하고 비교를 한 겁니다.

○ 理事 김양은

그러면 그게 증감률로 표시가 되면 안 되죠.

그것은 따로, 구독서비스 자체가 전략지원 사업이라서 그게 이전 사업과 비교가 되면 안 되는 도표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오해가 될 수 있는데요.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 議長 유시춘

예, 검토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理事 김양은

예,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금방 이영한 이사님 말씀하신 것에서도 굉장히 동감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세대나 이런 얘기도 제가 간담회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EBS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디지털 사회로의 시민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공영방송이 해야 될 역할 중에는 우리의 문화나 또 요즘 한류 열풍 굉장히 많은데, 한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나 문화나 음식이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라고 보여서요.

어쨌든 콘텐츠들을 앞으로 계속 고민하시고, 특히 유아어린이 콘텐츠들에서는 문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 돌아가는 여러 가지 분위기들을 맞추셔서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예, 감사합니다.

○ 議長 유시춘

의견 있으신가요?

[ 意見 提示하는 理事 없음 ]

화상으로 하는 것만큼 기타 질의사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안건 제2021-10호 「2021년 상반기 예산집행실적」 은 원안대로 청취하고 접수합니다.

(( 議事棒 三打 ))

【 第2021-11號 : 7月 主要 業務 推進 實績 및 計劃 】

○ 議長 유시춘

다음 마지막 보고안건입니다.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11호 「2021년 7월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을 상정합니다.

(( 議事棒 三打 ))

정책기획센터장,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안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보고에 앞서서 아까 선동규 이사님께서 질의하신 사내복지기금 현재 총 적립액이 확인됐습니다.

총 53억원이 적립되어 있어서 이게 확인되어서 우선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2021년 7월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항입니다.

<다큐프라임-아이> 3부작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방송되었습니다.

1부 '일춘기', 2부 '어린이는 오늘도', 3부 '나를 찾아서', 특히 3부 '나를 찾아서' 같은 경우는 2008년 다큐로 전 국민에게 사랑을 받았던 다큐 아이의 사생활 출연 학생들이 과연 어떻게 성장을 했고 그 성장 속에 시청자들이 알아야 할 어떠한 포인트들이 있는지 그런 내용을 담아서 방송이 되었습니다.

2번 사항입니다.

2021년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1에 EBS도 관련 콘텐츠를 출품하여 코딩 분야의 EBS의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공동주최하는 소프트웨어 교육 온라인 체험 이벤트로 6월 14일부터 7월 25일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초·중등 학생은 물론 일반인까지 접속해서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EBS 출품 콘텐츠는 점박이와 코딩을, 달려라 팽수 등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저희가 채택해서 올해는 20만 명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사항입니다.

편집 시스템 추가 구축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거대한 편집실을 추가로 구축하는 게 아니고, 1:1 편집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저희가 올해도 그렇고 아까 사장님도 말씀하셨고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코로나와 관련

해서 공적 책무 수행들을 여러 가지 추가해서 수행하고 있는데다가 이번에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해당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고, 하반기 또 글로벌 석학 프로젝트가 대규모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다 보니 현재 사내에 NLE 편집기가 75개가 있는데 이것으로는 도저히 수용이 안 되어서 저희가 직원들의 양해 하에 업무 공간들을 줄이더라도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NLE 편집기를 추가로 16개를 더 증설하고자 총 2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 NLE 편집 시스템을 추가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일정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4번 사항입니다.

‘과주놀이구름’ 오픈이 원래는 7월 24일 토요일에 개최해서 EBS 및 과주시청 직원 가족 대상으로 패밀리 데이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갑자기 4차 팬데믹 대유행이 벌어지는 바람에 일정은 방역상황을 체크하면서 연기한 것으로 다시 계획이 수정되었습니다.

5번 사항입니다.

아까 여러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가을편성 조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유아 콘텐츠 강화나 저희의 킬러 콘텐츠 생산들의 경우는 아까 콘텐츠기획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에는 문해력 콘텐츠, 또 세계석학 글로벌 프로젝트인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매일 주 5회 11시 35분에 편성되는 등 하반기에는 원래 예상되었던 계획들을 잘 수행해서 국민들에게 더욱 콘텐츠로써 EBS 존재감을 알리도록 노력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8월 이사회 때 콘텐츠기획센터에서 해당 내용 등을 보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번 정기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세무조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저희가 매봉 본사에서 일산 본사로 이전하고 나서 처음 수행되는 정기 세무조사입니다.

원래는 서울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다가 인천국세청에서 처음 조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몇 가지 주요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대응해서 효과적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사장님과 사장님, 부사장님, 또 관련 부서장님이 열심히 대응하고 계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요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질의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유시춘

예, 말씀 주십시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안 하신 김진 이사님 말씀하실래요?

○ 理事 김진

저는 이 안전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드릴 게 없고, 아까 조금 있었는데 다른 분들이 다 큰 얘기 많이 하셔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 議長 유시춘

또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理事 이영한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 말고 궁금해서 하나를 묻겠습니다.

지금 EBS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잘 비치하고 있을 텐데, 재난 시에도 그런 것이 다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다 대비가 돼 있나요?

예를 들어서 EBS가 화재가 났다, 그랬을 때 방비가 돼요?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지금 저희는 방통위에서 주요 국가시설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 대비 시 관련 계획과 지침들이, 이번에는 추가로 감염병에 대한 추가 대응계획까지 요구가 되어서 그 부분까지 해서 냈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쟁, 기타 재해, 화재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계획들을 수립해서 기본계획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理事 이영한

그런 것들을, 어떤 재난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EBS가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데이터가 그야말로 큰 역사인데 이런 것들이 그런 재난 때 안전하게 보존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장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理事 이영한

예.

○ 議長 유시춘

또 의견을 주십시오.

[ 意見 提示하는 理事 없음 ]

○ 議長 유시춘

세무조사 받느라고 사장님과 우리 부서장들 긴장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감기관이 서울에서 경기도로 오면서 바뀌고 난 다음에 겪는 새로운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온 힘을 다해서 대응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제가 이사님들한테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각오하고 계십시오.

○ 政策企劃센터長 김광호

감사합니다.

○ 議長 유시춘

지금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 없으신가요?

선 이사님 말씀하실래요?

○ 理事 선동규

아니요. 없습니다.

○ 議長 유시춘

그러면 그대로 접수해도 될까요?

[ 理事들 “예.” ]

그러면 보고안건 제2021-11호 「2021년 7월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은 원안대로 청취하고 접수합니다.

(( 議事棒 三打 ))

(閉會 : 17時 45分)

## V. 閉 會

○ 議長 유시춘

모쪼록 다음 이사회 때는요, 얼굴을 직접 뵙고 이사회 회의실에서 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8월 이사회 사이에 기간이 한 45일쯤 있어서 간단회를 한 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인데 팬데믹의 상황도 거의 비상사태인 것 같습니다.

모두 모두 건강을 잘 보살피시고 웃는 얼굴로 다음 간단회 때 만나 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이로써 한국교육방송공사 제311회 정기이사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議事棒 三打 ))

[ 理事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散 會》